이베로아메리카 제4집(2002년)

가우디 건축에 나타난 자연과 신

최 권 준*

Ⅰ. 들어가는 말

가우디(Gaudí)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갖는 느낌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더 바라보면 주변의 어느 건물과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결치는 듯한 곡선들이 자유로이 유영하고, 파충류의 모습을 닮은 듯한 발코니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는 것 같기에 조금은 당혹스러운 느낌마저 준다. 특히 유별나게 눈에 띄는 것들이 채광용 탑이나 굴뚝 그리고 통풍을 위한 탑들의 모습이다.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외계인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까사 밀라'(Casa Milà)의 경우에는 비행기 격납고로 풍자되기도 하고 곤충이나 동물들의 요새로 풍자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가우디가 자신의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연에서 본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가우디에게 있어서 모든 창조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우디에게서 자연이란 어느 곳의 자연일까?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묻는 이유는 가우디란 건축가의 작품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가우디 정도의 거장이라면 그

* 대구효성카톨릭대

가 표방한 자연은 보다 보편적일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막연한 선입견을 깨고 가우디의 자연세계는 자신이 태어나 자랐던 레우스(Reus)와 그 주변, 따라고나(Tarragona) 지역 그리고 건축 공부를 시작하고 활동을 한 바르셀로나(Barcelona)가 거의 전부이다. 따라서 그의 자연은 대부분 까딸루냐(Cataluña)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의 정신세계 또한 지역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건축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보다 폭넓은 세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변에서 찾아낸 자연의 조화로움을 건축이라는 상징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도 보편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바탕을 찾는다면 가우디가 나고 자라서 살았던 스페인과 까딸루냐 지방이 역사적 상황으로 다양한 건축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가우디가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세계를 자신이 표방하고자 한 자연과 조화롭게 융합해낸 것에 있다고 본다.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가우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신의 세계에 대한 표현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그의 삶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의 작품에 자연을 드러내고있으며, 어떻게 신의 세계를 표현하고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우디와 건축

1. 건축가의 꿈을 향한 여행

가우디는 1852년 따라고나 근처의 레우스라는 도시에서 솥을 주로 만드는 한 수공업자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레우스는 지금은 큰 도

시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는 무려 12개의 유럽 영사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당시 까딸루냐 지방의 제 2의 산업도시라고 볼 수 있었다. 16세 되던 1868년 공부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떠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았던 레우스와 주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지만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미 이 시절에 만들어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초, 중등 시절 가우디의 학업은 별로였지만 절친한 친구였던 또다(Toda), 리베라(Rivera)와 함께 주변의 성지와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했다. 한 예로 주변에 있던 뽀블렡(Poblet) 수도원 지역을 둘러보고, 아직 어린 철없던 생각이기는 했지만, 복원 계획을 친구들과 세우기도 하였다.[1] 물론 이것은 당시 까딸루냐 지방에 강하게 불고 있었던 과거 까딸루냐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레나센샤(Renaixença) 운동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2] 그리고 이 까딸루냐 지역주의 애착심은 그의 종교적 열정과 함께 평생을 좌우하였다. 한편 훗날 자신의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철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조형적 시각을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배웠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작업장에 들려 작업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으며 때때로 바쁠 때는 한 명의 훌륭한 조수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체득한 현장에서의 기술습득은 그가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아마도 책상에 앉아 그린 설계도대로 건물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과 더욱 발전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간 것은 이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좋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다섯 형제 가운데 가우디 위로 두 명은 가우디가 태어나기 얼마 전 아직 어릴 때 죽었고 가우디보다 약 18개월 빠른 프란시스코(Francisco)란 형이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가우디의 부모는 두 형제를 모두 바르셀로나에 보내 공부시켰다. 특히 형은 의

1)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어머니 품을 설계한 건축가 가우디』 (양성혜 역), 서울, 현암사, 2002, p. 86.
2) 앞의 책, pp.126-129 참조.

대를 다녔기에 형편이 어려워 둘은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본 지구에 살았다. 그리고 가우디는 건축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부터 각종 작업실에 조수로서 일을 하였으며, 그런 와중에도 주변의 여러 양식의 건물들을 두루 살펴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우디가 아직 건축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1876년 가을 어머니와 형이 갑자기 죽었다. 가우디에게 이 두 사건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가 쓴 유일한 일기가 이때 두 달 동안 쓴 것이다. 11월 25일에 쓴 일기에서 가우디는 아마도 어머니와 형의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듯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다.[3]

2. 건축물들에 나타난 자연

가우디 건축에 나타난 자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우디가 자연에서 본 온갖 자연물들을 표현하거나 자연에서 배운 구조들을 건축에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연이 사람을 닮고자 하거나 사람 자체를 상징화한다는 것이다.

가우디는 어린 시절부터 류마티즘을 앓아 좀 병약한데다 성격이 약간 괴팍하여 친구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과 뜻이 맞는 두 친구와는 제법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였고 더불어 주변 가까이 있는 유적지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꿈들을 가꾸어나갔다. 그렇다고 사춘기의 세 소년이 꾸었던 이상이 깊은 사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거나 현실에 대한 심오한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 또래의 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 인식에 당시 그들이 살고있던 지역의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생각들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4]

19세기 초반 이후 중앙정부는 까딸루냐 지방의 학교에서 까딸란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중앙통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3) 앞의 책, p.119.
4) 소년시절에 관해서는 앞의 책 pp.60-92 참조.

반대하여 까딸루냐 지식인들은 까딸루냐 왕국의 번영시대를 호소하며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각종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여 갔다. 마침 19세기 중반 이후 까딸루냐 지방, 특히 바르셀로나는 직물업과 철물산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19세기 후반에 전세기보다 면적 면에서 거의 10배 확장되었고 인구는 4배정도 증가하였다.[5]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19세기 후반 까딸루냐는 부흥운동인 레나센샤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기를 살았던 가우디는 이후 철저하게 까딸루냐 지역주의를 표방한다.[6]

가우디의 지역주의에 대한 일화는 많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까스떼야노(castellano)를 쓰기를 거부하였는데 심지어 법정에서도 까딸란만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우나무노(Unamuno)가 제 1회 까딸란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때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La Sagrada Familia)를 안내해주면서 우나무노가 알아듣든 말든 까딸란만 사용했다고 한다. 해서 우나무노는 까스떼야노로 "맘에 안 들어"를 중얼거리며 구경했다고 한다. 한 비평가는 그때 가우디가 까스떼야노로 설명해주기만 했더라도 그의 건축이 훨씬 더 빨리 스페인 전역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한다.[7]

이러한 경향과 함께 가우디는 자신의 주변에서 관찰한 자연의 모습들을 건물의 곳곳에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만든 최초의 디자인은 자신의 책상이었다. 그는 이 책상에 다양한 곤충과 동물, 식물을 디자인해 넣었다. 이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

5) Rainer *Zerbst, Gaudí: Una vida dedicada a la arquitectura*, Traducido por Carmen Sánchez Rodríguez, Köln, Benedikt Taschen, 1991, pp.16-17.

6) 까딸루냐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J. Vicens Vives y otros, *Historia de España y América: social y económica*, Vol. V, Barcelona, Ed. Vicens-Vives, 5a. ed. 1985, pp.310-313.

7)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363. 호아낌 또레스(Joaquim Torres)라는 가우디의 친구는 가우디를 까딸루냐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까딸루냐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 el más catalán entre los catalanes". Rainer Zerbst, 같은 책, p.128 참조.

그의 일생을 바친 작품인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그의 모든 건축물들에는 항상 자연이 등장한다.

가우디는 한 인터뷰에서 건축의 이상적인 모형을 어디서 배웠는가는 질문에 "건축의 이상을 나무에서, 즉 서있는 나무가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가"에서 배웠다고 하였다.[8] 그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자연은 열려있는 책"이라고 보았다.[9] 그리고 그는 건물을 의뢰 받으면 설계하기 전에 항상 그 건물이 들어설 장소를 방문하였다. 즉 주변의 건물들과 자연적 환경,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여 보고 설계하였으나 사진이 실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건축재료를 사용하였다.[10]

가우디 건축에 나타난 자연은 어떤 경우에는 건물의 외형이 이를 다양하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실내장식이나 조각 등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 까쁘리초(El Capricho)는 숲 속에 둘러싸여 건물의 이름처럼 다소 변덕스러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 푸른색 타일들은 해바라기로 웃음을 지으며, 건물에 비해 커다난 현관과 그 탑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야릇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아랍양식의 타일로 뒤덮인 까사 비센스(Casa Vicens)의 식당 천장을 바라보면 마치 하늘 아래 있는 듯 갖가지 새들이 자유로이 비상하고 있다. 구엘 노동자 단지 내에 있는 지하제실의 기둥들은 주변의 소나무들과 너무도 비슷하여 어느 것이 기둥이고 어느 것이 나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있다. 그리고 지하제실은 마치 자연동굴인양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다. 원시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금방이라도 몰려 올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어진 기둥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운 모습은 구엘 공원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다. 이층으로 되어있는 산책로의 기둥들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코끼리 다리처럼 공

8) Rainer Zerbst, 같은 책, p.31.
9) 안토니 가우디, 『가우디, 공간의 환상』 (이종석 역), 안양, 다빈치 출판, 2001, p.27.
10) 앞의 책, p.83.

간을 떠받치고 있고 나란히 기울어진 담과 함께 길다란 동굴을 형성하고 있으며,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벤치들이 담을 기댄 채 앉아있다.

까사 바뜨요(Casa Batlló)의 지붕 꼭대기 선은 공룡의 등뼈 같은 꿈틀거림이 덮고있고 건물 정면은 박힌 세라믹 원반들 때문에 햇살에 비친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이고, 가볍게 물결치는 벽면과 뼈로 이루어진 것 같은 발코니들은 조명을 받을 때에는 괴상한 웃음을 씩 짓는다. 돌로 된 무정물의 집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은 가우디가 추구하던 마치 성장하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발코니의 뼈로 된 것 같은 가는 기둥들 때문에 이 건물은 "뼈로 된 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1]

거대한 바위가 너울거리며 움직이는 까사 밀라의 움직임은 거센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백사장의 흔적처럼 꿈틀거린다. 건물 전체의 면적이 1600평방미터나 되므로 매우 큰 건물이지만 한 모퉁이를 점령한 이 건물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때문에 더욱 크게 보인다.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 건물은 가우디의 건축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대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풍자적 별명이 '채석장'(La Pedrera)이나 '벌집'(El Avispero), '빵'(La Empanada)과 같은 것들이다.[12] 특히 풍자만화들에 참호처럼 그려지거나 제플린 비행기의 격납고 혹은 납골당 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루시뇰은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뱀밖에 없다고 평하였고 한 풍자에서는 어린애가 엄마에게 지진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다.[13]

가우디의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도 그의 예술에 있어서의 자연적 요소를 설명하면서 뺄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첨탑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는 갖가지 자연의 모습이나 달팽이를 닮은

11) Rainer Zerbst, 같은 책, p.173.
12) 앞의 책, p.29.
13)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p.277-283 참조.

계단의 모습과 무엇보다도 사람과 동물의 조형들이 사실적 크기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관련된 자연의 모습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봄이 좋을 것 같다.

가우디 건물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말하였듯이 현장성이다. 가우디 건축의 설계는 책상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나가고 그 설계도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나가는데, 실제 건축할 때 필요에 따라 바꾸어나갔다. 이를 가우디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건축도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4] 이에 대해 에우헤니오 도르스(Eugenio D'Ors)같은 당시의 지식인들은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건축가가 가우디에게 설계도를 완성하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하자 가우디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설계도라고 했다고 한다.[15] 이처럼 그의 건축은 너무 엉뚱하고 즉흥적인 것 같지만 가우디는 즉흥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연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철저히 실험하고 검토한 것이었다. 그가 "즉흥곡은 결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를 잘 볼 수 있다.[16] 수곡선을 적용한 아치와 이 아치가 지지할 수 있는 건물의 하중에 대한 실험은 매우 유명하다. 철저한 계산과 검증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건축물들에서 과감하게 부벽을 제거하였고, 그 건물들은 오늘날까지 튼튼하게 건재하고 있다.

3. 자연으로서의 인간

가우디 건축물들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낄 수

14) Rainer Zerbst, 같은 책, p.25.
15)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267.
16) 안토니 가우디, 같은 책, p.53.

있는 그의 관심은 결국은 인간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베예스구아르드(Bellesguard)의 위층 옥탑방을 찍은 사진을 보면 돌로 된 거인이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기능이 조화를 이룬 것이 집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가 젊은 시절에 남긴 노트에 "가옥이란 가족이 사는 작은 나라이다"라는 글귀가 있다.[17]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이 사람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리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물에는 까사 바뜨요가 '뼈로 된 집'이란 별명답게 그렇게 보이며, 구엘 공원(Parque Güell)의 입구에 있는 두 건물이 그러하고, 다분히 추상화되었지만 건물들의 옥상에 있는 갖가지 모형의 굴뚝과 환기탑들이 그러하다. 처음 보는 동물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동화 속의 주인공들 같기도 한 모습들은 사람의 모습을 미로가 추상화한다면 그러할 것 같은 모습을 삼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다.[18]

추상화의 단계를 넘어서 실재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형으로 형상화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가우디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찾아 이를 그대로 석고로 본떠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변형의 모습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인 친구 산딸로(Santalo)에게 부탁하여 해부학 수업을 견학하고, 사람의 뼈를 구하여 작업실에 매달아 놓고 그 움직임을 연구하였다.[19] 슈바이처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방문하고서 인상적이라고 말하자, 가우디는 인상적일 수 있는 이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실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20]

---

17)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123.
18) Rainer Zerbst, 같은 책, p.29 참조.
19)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213.
20) Rainer Zerbst, 같은 책, p.31.

4. 현실의 이상과 신의 구현

가우디의 건축이 오늘날 그렇게도 대단하게 평가를 받지만 그의 건축을 모방하는 건축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독특한 창의성에도 있겠지만 그의 건축기법이 대부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우디가 남긴 건물들의 뒤에는 항상 귀족주의적 부호들이 있었다. 우연히 알게된 구엘과 꼬미야스(Comillas) 후작, 밀라 등은 가우디의 건축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남는 것이 가능하게 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들이었다. 그리고 몇몇 사제들을 이에 더할 수 있다.

가우디는 귀족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말년에 검소하며 고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가 추구한 세계는 까딸루냐 지역주의와 매우 귀족적이고 종교적이었다. 단적으로 그가 민주주의란 무지한 정치제도라고 한 것에서 생각의 근본적 모습을 볼 수 있다.[21] 이러한 그의 귀족지향주의 취향 때문에 피카소를 비롯한 몇몇 지식인들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았음은 유명하다. 1902년 피카소의 '기아'라는 펜화에서 한 건축가가 신과 예술세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데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는 장면이 있다.[22]

평범한 가정 출신이기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 작업실에서 줄곧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가우디가 부자들을 알게 된 것은 대학시절부터 가입했던 까딸루냐 지역 부흥단체들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작업실들의 주인들과 마르또렐(Martorell)이라는 건축가를 통해서이다. 가우디가 구엘을 알게 된 것은 에두아르도(Eduardo)의 작업실이라는 설도 있고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라는 설도 있다. 여하튼 가우디는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꼬미야스 후작이나 구엘의 주문으로 처음에는 가구들을 디자인해주었다. 이후 이들의 일을 점차 더 많이 맡게 되었고 1883년에는

21) 안토니 가우디, 같은 책, p.55.
22)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197.

구엘 가문의 건축가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외에도 벽돌과 타일 공장으로 돈을 번 비센스의 집을 짓게 되면서 그의 이름은 가까운 사람들 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한다. 사실 1883년 비야르(Villar)가 맡았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우디가 승계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볼 수 있다. 그때까지 아직은 제대로 된 건물하나 지어보지 못한 서른 한 살의 청년에게 그렇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좀 상식이하의 일이다. 하지만 마르또렐은 비야르를 대신할 건축가로 가우디를 추천하였고 사그라도 파밀리아를 지으려고 한 '성 요셉 영성회'의 고문이었던 보까베야(Bocabella)는 그를 고용하였다. 물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규모가 처음부터 오늘날의 모습처럼 거대한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가우디 자신도 처음에는 몇 년 후에 성당을 마무리 짓고 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점점 복잡해지고 커져나갔다.

가우디가 부호들과 친하였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까사 밀라의 경우에는 건축주인 밀라와 결국 법정소송으로 발전하였다.[23] 아스또르가 주교관(Palacio Episcopal de Astorga)은 건물을 의뢰했던 그라우(Grau) 주교가 죽자 완성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으며, 다시는 레온(León) 땅을 밟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엘과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구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돈을 벌어 바르셀로나로 와 섬유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형성한 사람이었다. 노동자들을 술과 유흥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노동자 단지를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만드는 것은 당시에 거의 착취에 가까운 노동자 관리의 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구엘 공원이 된 곳의 처음 계획은 공원이 아니었다.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해

23) 앞의 책, p.358. 밀라와의 소송에서 이긴 가우디는 10만 5000천 뻬세따를 모두 다른 곳에 기부했다.

바르셀로나의 섬유산업이 위기를 맞자 구엘은 그 자본을 고급주택단지 건설로 돌렸다. 쉽게 말해 제조업이 어려움에 부딪치자 구엘은 고급전원주택 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가우디에게 설계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단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에 지어질 집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지 전체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철저하게 고급화된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겠다는 '마르띤 뜨리아스 계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엄격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구역은 단 두 곳만 팔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원래계획의 공동지역에 만들기로 한 부분만 완성되면서 오늘날의 공원이 된 것이다.[24]

구엘은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었으나 섬유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스페인 왕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백작의 직위를 얻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신흥 부르주아의 모습이 가우디에게는 성공한 삶을 이룬 인물로 보였다. 가우디는 구엘을 까사냐스(Casañas) 추기경에게 자신이 아는 가장 뛰어난 신사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25] 이처럼 가우디는 구엘 같은 인물에게서 성공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구엘은 가우디의 건축을 이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우디의 건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도 구엘이 의뢰한 것들이다. 이러한 가우디 건축의 고급화와 창의성을 한층 승화시킨 요소는 다름 아닌 그의 신앙과 합일하는 신의 세계 구현이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단지 발견할 뿐이며, 건물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신에게 봉헌될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26] 어떻게 보면 매우 극단적일 수 있는 그의 종교적 실천과 이상은 대부분의 건물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고 가장 뛰어난 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일 것이다. 건축과 종교를 연관지은 그의 표현들은 교회의 크기로 위대성을 표출하여야 한다고 한 말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고난의 파차다를 건설할 때에 예수의 고난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다면 건물

24) 앞의 책, pp.237-239 참조.
25) 앞의 책, p.164.
26) 안토니 가우디, 같은 책, p.91.

전체를 망친다해도 상관없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27]

건축에 종교를 접목시키고자 한 가우디의 관심은 건축학교 학생시절에 이미 시작하였다. 1학년 과제물의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선정할 정도로 카톨릭 사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꼴레히로 떼레시아노(Colegio Teresiano)를 건설하던 도중 갑자기 또르또사(Tortosa)에 있는 한 수도원에 영적 은둔을 하여 사람들을 놀래키고, 94년에는 40일간의 금식으로 친구들의 걱정을 들었다. 이러한 그의 종교적 열정과 실천은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땐 벽과 기둥 등에 성경의 구절들을 써넣거나 상징적인 것들로 표현하였다.

Ⅲ.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우디 건물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은 비록 일반인들의 눈에 특이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두 자연의 형상들을 표현한 것이다. 물결치는 무늬나 원형 탑들 그리고 갖가지 식물이나 동물 혹은 곤충의 모습들을 새겨 넣은 그의 건물들은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특이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자연의 모습을 가우디처럼 표출한 건축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을 닮은 듯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파충류를 닮은 듯도 한 그의 채광탑이나 환풍탑, 굴뚝 등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에서 색다른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자연은 매우 지역적인 관찰과 애착심에서 나온 것이다. 가우디의 자연은 그가 살았던 자연환경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다소 이국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사실은 이미 그 지역에 존재했던 이슬람적 요소의 반영이다. 그리고 가우디의 건물들에 나타난 자연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그 자연이 매우 인간과 닮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가장 일반

27)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같은 책, p.367.

적으로 알려진 인간적 모습을 한 건물이 까사 바뜨요이다. 이 건물은 일명 '뼈로 된 집'이라고 불리는 데 이 건물의 발코니를 자세히 보면 마치 인간의 해골이 발코니를 지키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의 역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원형 탑들은 까딸루냐 민속놀이인 인간 탑 쌓기 모습을 닮았다. 물론 예수 탄생의 파차다도 마찬가지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본 것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에게서 자연은 신의 이미지였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을 단지 모방할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성당을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당이 주변의 건물보다 작으면 신의 위대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는 카톨릭에 대한 처절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년의 그의 모습은 실제로 속죄의 고행을 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걸인과도 흡사한 고행자의 모습이었기에 그가 전동차에 치였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조셉 플라는 가우디를 숲 속에서 나온 원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28] 그리고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하였다.[29]

참고문헌

안토니 가우디, 『가우디, 공간의 환상』 (이종석 역), 안양, 다빈치 출판, 2001.

하이스 반 헨스베르헌, 『어머니 품을 설계한 건축가 가우디』 (양성혜 역), 서울, 현암사, 2002.

Vives, J. Vicens y otros, Historia de España y América: social y

28) 앞의 책, p.282.
29) 앞의 책, p.387.

económica, Vol. V, Barcelona, Ed. Vicens-Vives, 5a. ed. 1985.

Zerbst, Rainer, Gaudí: Una vida dedicada a la arquitectura (Traducido por Carmen Sánchez Rodríguez), Köln, Benedikt Taschen, 1991.

URL: http://www.geocities.com/SoHo/Lofts/9477/curriculumgaudi.htm (Home Page de Antoni Gaudí)